

가

꿈 내가 왜 벤처기업의 CEO가 되었나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. 나는 흔히들 말하는 공돌이였고, 엔지니어였다. 대기업에서 연구원으로 일했고, 그것이 내가 가야 하는 정당한 길이라고 믿었다. 길을 걷다 보면 몇 번의 선택은 불가피하다. 길 위에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기 마련이고, 어떤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몫이다.

그러니까 나는 선택이라는 것을 한 것이다. 한 길만 걸어오다 그 길에서 방향을 바꾸었다. 사람에게는 무언가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, 그 욕구의 종류는 다양하다.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력이 세계에서 인정을 받지만, 그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되어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대부분 미국이나 일본 업체의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서, 이 분야에 많은 희망이 있고, 비전이 있음을 보았다. 그 비전을 보며 나

는 모험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.

모험의 동기는 무엇보다 순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그 모험을 시작하면서 성공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것은, 모험을 결정할 때 필요한 일이 아니다. 사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고,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모험에 의한 결과물이 아닌가. 그 모험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가치는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다.

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도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제품이 매일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, 사람에게겐 새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. 그러한 욕구가 존재하는 한 연구개발은 계속될 것이다.

O V E R T H E V E N T U R E

벤처인의 선택은 아름다운 모험

글 _ 이성민 (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, 엠텍비전 대표)

벤처기업이 밤을 새우고, 초기의 힘든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은 성공에 대한 확신보다는 그러한 욕구를 채워나가는 성취감이 분명 더 강하다고 생각한다. 우리는 벤처기업을 선택했다. 다른 기업에서 일을 할 수 있었고, 다른 모습으로 살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이 길을 선택했고, 목적이 있다. 선택 후에는 집중이 있어야 한다. 집중하는 일이 결코 쉽지않은 않을 것이다. 우선 치열한 자신과의 싸움을 겪어야 한다. 준엄한 현실 앞에 맞닥뜨리기도 할 것이다. 그럴 때마다 인내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, 비전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붙잡아야 한다.

자신이 선택한 길을 열심히 걷고 있는 여러 벤처인들을 보면서 한국경제의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. 지금보다 더 원대한 미래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는 벤처인들이야말로 꿈의 사람이며 개척자이다. 이러한 노력들이 인류의 운택한 삶에 작게나마 기여할 수 있다면, 그것만으로도 벤처인 개개인의 선택은 가치 있는 모험이라 인정할 만하지 않을까.

지금도 곳곳에서 진행 중일 다양한 선택의 순간을 응원하며, 더욱 많은 이들이 선택의 대열에 합류하길 소망한다.